

존재와 소유 혼용 하나 서로 달라

김형효 명예교수 '존재와 소유' 주제 특강 2월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서

동·서양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불교사상을 풀이해 온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존재와 소유'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존재와 소유의 혼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존재론적인 욕망과 소유론적인 욕망이 나누어지는 까닭과 의식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김형효 명예교수(사진)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의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3기 세 번째 시리즈에 강사로 참여해 1월 23일~27일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강연한다.

첫 번째 강좌인 23일, 김 명예교수는 '존재와 소유의 관계-부일부동(不一不二)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욕망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구분하고, 동·식물이 먹이를 취하는 것이 소유욕인지 존재하려는 욕망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풀어냈다.

김 명예교수는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서 '존재하다'와 '소유하다'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는

의 방편"이라고 강연한다. 이어 김형효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문명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던 역사의식을 고수했으나, 현재 인류는 자연친화적 생활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문명의 큰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월 6일, 김 명예교수의 세 번째 강좌는 '존재자적 형이상학과 존재의 사유'를 주제로 진행된다.

'존재의 사유'는 독일의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사유는 주어와 목적어 대상화해 맹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 분리 이전의 상태에서 마음이 마음을 머금은 행위와 같으며, 존재의 사유는 존재가 존재를 머금은 행위와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동·서양 철학사가 거의 모두 존재자 중심의 형이상학으로, 과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호(相補)하는 관계였음을 설명한다.

20일, 김형효 명예교수는 네 번째 강좌 '놀이하는 마음'에서 "인간과 자연은 모두 놀이를 한다"며 "놀이하는 마음은 대공정의 마음이고, 무심(無心)·무아(無我)의 마음이다"라고 강연한다.

김 명예교수는 "우주적 선을 증장시키는 것은 선이 악의 씨를 뿌리 뽑기 위해 악을 공격하고 악을 절멸시키려는 마음이 아닌 악과 함께 노닐려는 마음"이라며 "악과 더불어 노닌다는 것은 악을 용인하지는 것이 아니라, 악심의 예기를 꺾고 놀이에 몰입한 악심이 스스로 악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27일 열리는 다섯 번째 강좌에서는 박창국 서울대 교수, 장승구 세명대 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김형효 명예교수와 강연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김형효 명예교수는 강좌 시작에 앞서 "존재"와 "소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존재'와 '소유'의 두 원칙

은 인간에게 공(功)의 도리와 무(無)의 허허로움을 인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의 강좌는 인문강좌 홈페이지(lectures.nrf.go.kr)를 통해 동영상으로 서비스된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과 일요일 오전 9시, 수·목요일 오후 5시에 방송 대학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한국의 인문학계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석학들이 일생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공개 강연을 통해 관련분야 학자, 지식인,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도록 소개하고, 해당 주제를 다룬야 학자·연구자와 함께 토론해 한국학계와 후학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를 통해 인문학과 인접 학문분야의 국내 최고학자 10인을 초청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 강연자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5주씩 공개강좌를 실시해왔다. (02)739-1223 조동섭 기자

학술 문화재 소식

진흥원 '세상을 위한 불교' 강연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11일 오전 11시부터 마포 다포빌딩 대법당에서 경인년 신년 대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세상을 위한 불교, E-GREEN BUDDHA의 세계로'를 주제로 오늘날 불교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법문이 열린다. 법회 첫날인 1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시작으로 2일에는 정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3일에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4일에는 지운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학장), 5일에는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법문한다. 이어 8일에는 김재영 동방불교대학 교수가, 9일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10일에는 박영재 서강대 교수가 법문하며, 11일에는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법문을 끝으로 회향한다. (02)703-0108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7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이하 연구원)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7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연구원이 지난해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선인연구원), '사찰재정 관리 방안 연구'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 '사찰경영의 성공적 사례와 불교교단적 함의'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대만 자제공덕회의 지향과 체계' (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대표) 등이 수록됐다. 한편, <선문화연구>는 구랍 25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국외 반출 문화재는 10만 여점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문화재 목록화 작업 결과 발표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가 10만 여점에 이르고, 이들 문화재가 세계 18개국 347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 문화재 목록화 작업 등 학술조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외 한국문화재 수가 7만6143점에서 3만 1000여 점 늘어난 10만7857점으로 확인됐다'고 1월 20일 발표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년 여에 걸쳐 국제교류재단, 한국서지학회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고,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의 협조를 받아 한국 문화재 목록화 작업을 추

진했다. 이번 확인작업은 언론 보도 등 수량만 알려진 것들을 제외하고, 현지조사와 도록, 소장처 제공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집계해 정확성을 더했다.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수가 3만 여 점 늘어난 10만 여점으로 밝혀진 데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돼 온 일본·미국지역 전적류 조사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국 문화재는 일본이 동경국립박물관 등에 6만1000여 점을 갖고 있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국(2만7000여 점), 중국(4000여 점), 영국(3700여 점), 러시아(2600여 점), 독일과 프랑스가 2000여 점 순이었다.

특히 일본은 이제까지 3만5000여 점의 한국 문화재가 있는 것

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6만 2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종류별로는 고고미술품이 5만4000여 점, 전적류가 5만3000여 점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 연구실 박대남 학예연구관은 "이번 통계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외규장각도서 등 약탈 문화재를 비롯해 1900년대를 전후해 정상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반출된 유물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영국·호주 '직지 최고 금속활자'

뱅크, 英 중앙도서관·호주 머큐리박물관에 등록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VANK, 단장 박기태)의 노력으로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에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물'이라는 사실이 게재됐다.

뱅크는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이 최근 '홈페이지에 <직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다'는 편지를 각각 보내왔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

뱅크는 2007년부터 청주 고인쇄 박물관과 함께 해외 인쇄박물관과 도서관, 백과사전 등을 대상으로 <직지>의 가치를 바로 알리는 '직지 세계화 사업'을 펼쳐왔다.

뱅크는 세계 주요 박물관·도서관 등이 금속활자를 소개하면서 <직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 등에 "<직지>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임을 편지

로 알렸다.

그 결과, 영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은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1377년 한국에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불교 서적"이라는 내용을 각각 홈페이지에 반영키로 했다.

뱅크는 "이번에 시정된 도서관, 박물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및 인쇄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지를 알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뱅크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미디어' 미국판에 '직지'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임을 게재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위키미디어' 포르투갈어판에도 '직지'와 관련한 내용을 올렸다.

조동섭 기자



조계사 대웅전 영구위패 봉안 불사 안내

전법수행도량이자 기도영험도량으로 불자님들의 편안한 귀의처가 되고 있는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선 선망부도조상영가를 대웅전 안에 특별히 장엄한 영단의 영구 위패에 모시고 매일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하고, 축원해드리고, 재(齋)가 있을 때마다 공양을 베풀어드리며, 또한 법회시마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려주어, 영가가 더 이상 업보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바른길에 들어 극락세계에 왕생토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불자님들께서는 조계사 조상영가 영구위패 봉안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조상님들과 유주 무주 고훈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원성취하시며 무량공덕 이루시어 구경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 영구위패란에 모셔진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음력 초하루마다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 ※ 위패 1위에 3대까지 모셔드립니다.
- ※ 살아생전에 위패를 미리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름을 각인하여 모셔둘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732-2115
팩 스 : 02-720-1391

